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특허심사 가이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특허청, 산학연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10.18.) -
-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 설명 및 이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0. 18.(금)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관련 출원 건수는 '15년 2,785건에서 '23년 7,14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19년 1,740억 달러에서 '25년 6,57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GLOBAL ICT PORTAL 20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디지털공학 및 의약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기술(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특허요건 판단 시 효과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특허명세서 작성이나 권리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는 이러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계의 의견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심사실무가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관련 업계 등에 전파하여 성장동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이드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디지털융합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책임자	과 장	전범재 (042-481-5782)
		담당자	사무관	임민섭 (042-481-8216)
		책임자	과 장	손창호 (042-481-5575)
		담당자	사무관	손준영 (042-481-5720)

□ 간담회 개요

- (목적)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 (일시) ‘24년 10월 18일(금), 14:00 ~ 16:00
- (장소)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 (예상 참석인원) 특허청, 산학연 관계자 등 총 36명
 -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 등 7명
 - (산학연) (주)에임페드, (주)테라노비스, 서울대 병원,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변리사 등 산학연 관계자 29명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4:00 - 14:05	인사말	바이오헬스케어 심사과장
14:05 - 15:00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안) 설명	의료데이터 특허팀장
15:00 - 16:00	의견 수렴 및 자유 토론	